

기독교인의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이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박지회*(성균관대학교 박사수료), 주유진(KC대학교 학부)

I. 서론

성경에 나타나는 봉사는 신자가 성도의 연합체인 교회와 성도 개개인이 속한 이웃과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기는 삶과 가르침에 순종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회봉사에 대한 정의가 되기도 한다(이복수, 2002). 기독교인의 봉사는 성령 안에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몸으로 존재하고 실존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본질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 때 교회는 전통적으로는 말씀선포, 교육, 교제, 봉사, 예배 또는 성례전을 기본적으로 수행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본 받아 교회 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실제적인 활동의 의무를 가진다.

교회 공동체와 신자 개개인이 본 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역을 살펴보면, 예수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고통을 겪는 자를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과 친교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렸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다. 여기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사회봉사의 성격을 가지는 데, 첫째는 소극적 차원으로 병의 치유와 개인적으로 불행해진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적극적 차원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평안을 이룸으로써 인류 문제를 해결하는 섬김의 자세이다(임희모, 2001). 이는 곧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실현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며,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섬김의 봉사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교회의 본질을 논할 때 봉사가 중요하게 다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추진되어 온 기독교인의 봉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봉사를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목회자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조사, 봉사활동에 대한 접근 방법과 교육, 훈련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교회 및 사회봉사의 주체인 기독교인의 연령, 직분, 신앙경력 등의 개인배경 특성과 더불어 봉사참여와 봉사몰입에 따른 개인의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 초점을 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이 될과 동시에 봉사 경험이나 개인의 다양한 신앙생활 요인에 영향을 받는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도에 대해 실증적 연구가 누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인의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이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자 개개인의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도를 증대시키는 데에 봉사를 연계한 교회교육 활성화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변인 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 앞서, 우선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특성별 주요 변인에 대한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jihoe27@naver.com

차이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기독교인의 성별, 연령, 직분, 신앙경력 등과 같은 개인배경 특성과 더불어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을 봉사참여와 봉사몰입으로 구분하여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여타 변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예측변인의 영향력을 상세하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의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봉사몰입도, 신앙성숙도, 교회생활 만족도는 개인배경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특성,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봉사몰입도는 신앙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특성,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봉사몰입도는 교회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기독교인의 교회 및 사회봉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교회 및 사회봉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회봉사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성경에 나타나는 사회봉사의 의미를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삶과 가르침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복수, 2002). 먼저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가난한 자들이 무엇을 빌리려할 때 거절하지 말고(마 5:42), 남을 구제하는 자의 자세로서 은밀하게 구제하도록 했으며(마 6:1-4), 재물이 많은 한 청년에게 온전하고자 하려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도록 했으며(마 19:21),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였다(마 22:39). 또한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식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임을(마 20:28) 밝힘으로써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이 세상에 가난한 자, 매인 자, 눈먼 자를 위해 오셨음을 그의 공생애 시작에 선포를 했고(눅 4:18), 선한 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웃이라는 것을 가르치셨고(눅 10:25-37), 탐심으로 재물을 쌓아두는 일을 문제 삼았으며(눅 12:15-21),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 소경과 저는 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표명하셨다(눅 14:16-24). 또한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본을 보임으로써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음을 가르침으로써(요 3:3-12) 낮은 자의 모습으로 진실 되게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직접 보이셨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자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예수의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선포와 교회 및 사회봉사는 교회 존재의 목적이자 신자 개인의 신앙생활에 요구되어지는 구체적인 실천 양식이 된다.

기독교인의 교회 및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수의 연구들이 봉사를 통한 교회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고, 목회자의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 교회의 봉사활동조직

및 지원현황, 봉사활동 자원과 접근방법 및 교육, 훈련 등을 다루고 있다(박지현, 2011). 구체적으로 이왕재(2012)는 교회의 지역 사회 봉사를 통한 지역공동체와의 소통과 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에서 목회자가 교인의 봉사 참여와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교인의 봉사 참여 증대 및 보람 얻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목회자가 교인을 목회의 협력자 및 동역자의 관계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남문현(2008)도 복지목회의 관점에서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교회가 자원봉사자를 교육함에 있어 목회자가 봉사에 대한 일반적 지식의 습득 및 봉사의 성격적 의의를 우선 정립해야 한다는 실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봉사를 통한 교회 활성화의 방안으로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공통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외 교회 및 사회봉사와 여타 변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수정(2007)은 봉사교육을 받은 경험이나 실제적인 봉사의 수행이 신앙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박지현(2011)은 노년층 기독교인의 봉사활동 참여가 교회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봉사 참여에 따른 봉사몰입의 정도가 높을수록 교회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권순미(2000)는 청소년이 어릴 때부터 기독교적 가르침을 통해 사회화 된다면 자원봉사 활동의 지속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사회봉사가 어릴 때부터 지속되면 봉사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대체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기독교인의 봉사활동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교회 및 사회봉사의 주체인 기독교인의 연령, 직분, 신앙경력 등의 개인배경 특성과 더불어 봉사참여와 봉사몰입에 따른 개인의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는 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특성에 따라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을 이루는 봉사참여와 봉사몰입이 개인의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신앙성숙도

신앙성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점진적 과정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삶이 더욱 순종하게 되는 정도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성숙도는 종교심리학적 관점에서 성결함, 완전함, 거룩함, 온전함 등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의미하고, 신학적 관점에서는 성화(sanctification)라 할 수 있다. 이는 세속과 죄악의 삶에서 분리되는 정도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정도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앙성숙도는 신자 개인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기준을 신앙에 두고 헌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황병배·안병덕, 2016).

신앙성숙에 대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종교활동, 신앙성숙도 삶의 질, 가정생활 만족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연구(정진오, 2009; 조혜정, 2012)와 대학생이나 기독교청년들의 신앙성숙도가 자존감이나 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한 연구(배은주, 2004)가 있다. 또한 기독교청년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자원봉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실제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신앙성숙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수정, 2007).

한편 신앙성숙도를 실제적으로 측정하는 데에 집중한 일련의 연구를 살펴보면, 박기영(1996)은 신앙

의 성숙을 인지적, 정의적, 의지적인 면 등의 세 가지 측면으로 보고,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 세 가지 차원에서 고른 성장을 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교육목회적 관점에서 신앙성숙 척도를 개발한 이정수(2009)는 신앙 성숙의 영역을 코이노니아(Koinonia, 교제), 레이투르기아(Leiturgia, 예배와 기도), 디다케(Didache, 가르침), 케리그마(Kerygma, 말씀선포), 디아코니아(Diakonia, 봉사과 섬김) 등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 보고,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성숙은 이 다섯 가지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의 인격과 삶의 변화는 신앙 성숙의 다섯 가지 영역을 기독교인의 삶의 전 영역에 얼마나 적용하고 있는가로 판단함으로써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신앙성숙도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이나 개인의 다양한 신앙생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과 다양한 관점에서 신앙성숙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수(2009)가 개발한 신앙성숙 척도를 활용하여 기독교인의 신앙성숙도를 측정하고 개인배경 특성과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기독교인의 신앙성숙도를 함양하는 데에 있어 봉사와 연계한 교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3. 교회생활 만족도

교회생활은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과 통합성 및 유대감을 가지게 함으로 소외감과 고독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노년층을 포함한 기독교인에게 생활만족을 제공한다고 보고되고 있다(현외성, 2011). 학술적으로 교회생활 만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봉사 차원과 결합된 의미에서의 교회생활 만족도는 기독교인이 교회생활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련의 과정에 속하는 환경과 변화에 잘 적응하는가와 관련이 있으며, 교회 구성원으로서 교회생활에 적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로 볼 수 있다(박지현, 2011).

교회생활 만족에 대한 측정은 대표적으로 Silverman et al(1983)을 통해 실시되었고, 기독교인의 교회생활과 관련한 교회만족 설문지(The Congregation Satisfaction Questionnaire)가 개발되었다. 그들은 교회에 대한 교인들의 만족요인을 봉사, 교인, 정책과 규칙, 교육, 익명과 행위, 시설, 성직자 등의 8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김양섭(1994)은 Silverman et al(1983)이 개발한 CSQ를 변안하여 교육프로그램 요인, 환경요인, 교회시설 요인, 봉사이인, 교회정책요인, 목회자요인 등 6개 요인을 중심으로 교회생활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이 측정도구는 국내에서 진행된 교회생활 만족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에서도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선술 한바와 같이 교회생활을 구성하고 있는 영역이 다양함에 따라 교회생활 만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자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생활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선행연구 또한 교회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변인과 교회생활 만족의 관계를 탐색하는 데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상당하였다(박지현, 2011; 양용비, 2007; 현외성, 2011). 특히 박지현(2011)은 노년층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참여가 교회생활 만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따라 봉사참여에 따른 봉사몰입의 수준이 증대될수록 교회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와 봉사몰입이 교회 생활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연구를 누적하는 차원에서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기독교인의 성별, 연령, 직분, 신앙경력 등과 같은 개인배경 특성에 따라 교회생활 만족에 차이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교회생활 만족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독교인의 신앙성숙도 증대와 더불어 교회생활 만족도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교회교육의 방향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기독교인의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이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목적 아래, 국내 개신교 교회에 출석하는 만 18세 이상의 교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에 대한 설문은 편의 표집 방식에 기초하여 온·오프라인으로 실시되었고, 설문기간은 2016년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144명의 기독교인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나 유효하지 않은 4명의 설문 결과를 제외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최종 14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볼 때, 성별에 따르면 남자가 58명(41.4%), 여자가 82명(58.6%)이었다. 연령은 20대 이하가 79명(56.4%), 30대가 34명(24.3%), 40대가 10명(7.1%), 50대 이상이 17명(12.1%)으로 나타났다. 직분에 따르면, 장로 및 권사, 집사 등을 포함하는 권찰 이상의 직분자가 32명(22.9%), 비직분자가 86명(61.4%), 전도사 이상의 목회자가 22명(15.7%)으로 파악되었다. 신앙 경력에 따르면, 5년 이하가 14명(1.7%), 6-10년 이하가 15명(1.7%), 11-20년 이하가 31명(22.1%), 21-30년 이하가 51명(36.4%), 31년 이상이 28명(2.0%)으로 다양하였다.

2. 측정 도구

(1) 독립변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인인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독립변인은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변인과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정도, 그리고 봉사몰입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정도와 봉사몰입은 본 연구에서 나타내는 기독교인의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을 아우르는 주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변인은 성별(2단계 더미변인), 직분(3단계 더미변인), 연령대(4단계 더미변인), 신앙경력(5단계 더미변인)을 적용하였다. 성별은 남·여로 구분하였고, 직분은 장로 및 권사, 집사 등을 포함하는 권찰 이상의 직분자와 비직분자, 그리고 전도사 이상의 목회자로 구분하였다. 특히 사항

으로는 다수의 연구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직분자 및 비직분자로 구성된 평신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회에 출석 및 사역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특성을 두루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에 교회 내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직분의 영역을 구분할 때 평신도 내 직분자와 비직분자를 구분했고, 아울러 목회자를 포함하여 교인의 직분 범주를 나타내었음을 밝히는 바이다. 연령대는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신앙경력은 5년 이하, 6-10년 이하, 11-20년 이하, 21-30년 이하, 31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정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개인이 지각한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정도를 묻는 단일 문항이며, 이는 Liker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측정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봉사몰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owday, Steers, & Porter(1979)가 개발한 활동 몰입 측정도구(Organizational Commitment Questionnaire)를 봉사활동의 관점에서 설문을 실시한 구혜영(2006)의 연구를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서적 활동몰입, 계속적 활동몰입, 규범적 활동몰입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봉사몰입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봉사몰입도 전체 문항의 *Cronbach's a* 값은 .892이며,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자료를 분석하여 얻어진 *Cronbach's a* 값은 .9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 설정한 종속변인은 기독교인의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 기대되는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 변인이다. 각 종속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정수(2009)가 개발한 신앙성숙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4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신앙성숙도는 코이노니아(교제), 케리그마(복음선포), 디다케(가르침과 교육), 레이투르기아(예배와 기도), 디아코니아(섬김과 나눔) 등 5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하위변인은 9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신앙성숙도 전체 문항의 *Cronbach's a* 값은 .94이며,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자료를 분석하여 얻어진 *Cronbach's a* 값은 .9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교회생활 만족도는 Silverman, Pargament, Johnson, Echeemendia, & Snyder(1983)가 개발한 교회만족 설문지(The Congregation Satisfaction Questionnaire)를 김양섭(1994)이 번안하고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통되게 활용된 CSQ를 사용하였고, 다소 내용이 중복되는 것들은 문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 21개의 문항을 통해 교회생활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이는 교회 교육의 만족도, 교인 간 관계 만족도, 봉사 만족도, 교회 내 목회정책제시 만족도, 목회자 만족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의 자료를 분석하여 얻어진 교회생활 만족도 전체 문항의 *Cronbach's a* 값은 .9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기독교인 140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IBM SPSS Statistics 22 버전을 이용하여 개인배경 변인,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봉사몰입, 신앙성숙도, 교회생활 만족도 변인 간 상관을 구하였으며, 개인배경 특성에 따른 기독교인의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봉사몰입도, 신앙성숙도, 교회생활 만족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t-test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분산의 동질성 유무에 따른 분산분석과 Welch 검증,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분산분석 후, Scheffe 사후검증을 수행하였고,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Welch 검증을 통해 F값 산출 후, $p < .05$ 수준을 만족하는 문항에 대하여 Games-Howell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투입되는 변인에 따라 세 가지 모형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모형에서는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특성만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하여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두 번째 모형에서는 개인배경 특성과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개인배경 특성,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변인과 함께 봉사몰입도 변인을 추가하여 모형을 완성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개인배경 특성과 종속변인과의 순수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에 대한 효과를 타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국내 개신교 교회에 출석중인 만 18세 이상의 교인 140명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된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변인별 기술통계를 살펴보면,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정도 평균은 3.14($SD=1.21$), 봉사몰입도 평균은 3.47($SD=.80$), 신앙성숙도 평균은 3.68($SD=.59$), 교회생활 만족도 평균은 3.37($SD=.73$)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교회 및 봉사참여, 봉사몰입도, 신앙성숙도, 교회생활 만족도를 보통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지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변인의 왜도와 첨도 검토 결과, 왜도의 범위는 -.64에서 1.70으로, 첨도의 범위는 -1.90에서 1.59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West et al., 1995)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각 변인별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과 신앙경력($r=.31$), 직분과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r=.30$), 직분과 신앙성숙도($r=.39$), 신앙경력과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r=.28$), 신앙경력과 신앙성숙도($r=.23$),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와 봉사몰입($r=.22$),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와 신앙성숙도($r=.39$), 봉사몰입과 신앙성숙도($r=.40$), 봉사몰입과 교회생활 만족도($r=.29$),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도($r=.28$)는 유의수준 .01 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특히 신앙경력이 높을수록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정도가 높고, 신앙경력이 높을수록 신앙성숙도가 높으며,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정도가 높은

기독교인일수록 신앙성숙도가 높고, 봉사몰입의 수준이 높을수록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N=140)

변인	1	2	3	4	5	6	7	8
1. 성별	-							
2. 연령	-.02	-						
3. 직분	-.39**	.05	-					
4. 신앙경력	-.03	.31**	.13	-				
5.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03	.06	.30**	.28**	-			
6. 봉사몰입도	.05	-.02	.07	.04	.22**	-		
7. 신앙성숙도	-.11	.12	.39**	.23**	.39**	.40**	-	
8. 교회생활 만족도	.09	-.03	.08	-.15	.06	.29**	.28**	-
평균	.41	2.75	2.01	3.44	3.14	3.47	3.68	3.37
표준편차	.49	1.03	1.78	1.23	1.21	.80	.59	.73
왜도	.35	1.20	1.70	-.60	-.43	-.64	.01	.00
첨도	-1.90	.14	1.20	.55	-.57	1.59	-.54	.19

주) ** $p < .01$

2.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특성에 따른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 신앙성숙도, 교회생활 만족도의 차이

본 절에서는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특성에 따른 주요 연구변인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을 이루는 주요 변인 중 하나인 봉사몰입도와 교회생활 만족도에 대한 개인배경 특성별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와 신앙성숙도에 대한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1)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특성에 따른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정도의 차이

기독교인의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을 구성하는 봉사 참여 정도와 봉사몰입도에 대한 개인배경 특성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봉사몰입도에 대한 개인배경 특성 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정도에 대해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직분과 신앙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참조). 먼저, 직분에 따른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비직분자가 2.93점, 직분자가 3.16점, 목회자가 3.95점으로 나타나 목회자가 비직분자 및 직분자에 비해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정도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앙경력에 따른 평균차이를 살펴보면, 5년 이하가 2.00점, 6-10년 이하가 3.13점, 21-30년 이하가 3.22점, 11-20년 이하가 3.26점, 31년 이상이 3.5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후검

중에 따라 세부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31년 이상의 신앙경력을 가진 기독교인이 5년 이하의 기독교인보다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특성에 따른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정도의 차이 (N=140)

구분	측정내용	N	M	SD	t/F	사후검증
성별	남자	58	3.10	1.31	-.32	-
	여자	82	3.17	1.15		
연령	20대 이하	79	3.05	1.38	.43	-
	30대	34	3.32	1.12		
	40대	10	3.10	0.88		
	50대 이상	17	3.24	0.66		
직분	비직분자	86	2.93	1.29	5.71**	목회자>비직분자, 직분자
	직분자	32	3.16	0.63		
	목회자	22	3.95	1.25		
신앙경력	5년 이하	15	2.00	1.56	3.01**	31년 이상>5년 이하
	6-10년 이하	15	3.13	1.46		
	11-20년 이하	31	3.26	1.12		
	21-30년 이하	51	3.22	1.12		
	31년 이상	28	3.50	0.79		

주) ** $p < .01$

(2)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특성에 따른 신앙성숙도의 차이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특성에 따라 신앙성숙도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성별과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직분과 신앙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3>참조). 먼저, 직분에 따른 신앙성숙도의 평균 차이를 보면, 비직분자가 3.52점, 직분자가 3.77점, 목회자가 4.17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목회자가 비직분자 및 직분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신앙성숙도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신앙경력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5년 이하가 3.34점, 6-10년 이하가 3.48점, 21-30년 이하가 3.68점, 11-20년 이하가 3.78점, 31년 이상이 3.86점의 순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신앙경력이 오래될수록 신앙성숙도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사후검증에 따른 신앙경력 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특성에 따른 신앙성숙도의 차이

(N=140)

구분	측정내용	N	M	SD	t/F	사후검증
성별	남자	58	3.76	0.65	1.29	-
	여자	82	3.63	0.54		
연령	20대 이하	79	3.62	0.60	1.47	-
	30대	34	3.69	0.52		
	40대	10	4.02	0.48		
	50대 이상	17	3.73	0.69		
직분	비직분자	86	3.52	0.53	12.84***	목회자>비직분자, 직분자
	직분자	32	3.77	0.58		
	목회자	22	4.17	0.55		
신앙경력	5년 이하	15	3.34	0.66	2.67*	-
	6-10년 이하	15	3.48	0.48		
	11-20년 이하	31	3.78	0.62		
	21-30년 이하	51	3.68	0.59		
	31년 이상	28	3.86	0.48		

주) * $p < .05$, ** $p < .01$, *** $p < .001$

3. 기독교인의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과 신앙성숙도의 관계

기독교인이 지각한 신앙성숙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개인배경 변인과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이 어떠한 관련을 맺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참조). 첫 번째 모형에서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변인과 신앙성숙도를 살펴보았을 때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24%로 확인되었다. 특히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변인 중 비직분자에 비해 목회자들의 신앙성숙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5년 이하의 신앙경력을 가진 기독교인들에 비해 11-20년 이하와 31년 이상의 신앙경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성숙도를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직분, 신앙경력, 신앙성숙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드러난 결과와 일치한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개인배경 변인에 이어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변인이 추가로 투입되었다. 두 번째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29%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기독교인들의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가 신앙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파악되었고, 신앙성숙도에 대한 설명력을 5% 추가적으로 향상시켰다. 즉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신앙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와 신앙성숙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드러난 결과와 일치한다.

세 번째 모형에서는 개인배경,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변인에 이어 봉사 참여에 따른 봉사몰입도가 추가로 투입되었다. 세 번째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38%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기독교인들의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와 봉사몰입도가 신앙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파

악되었고, 봉사몰입도가 투입된 후 신앙성숙도에 대한 설명력을 9% 추가적으로 향상시켰다. 즉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에 따른 봉사몰입의 수준이 높을수록 신앙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 또한 앞에서 제시한 봉사몰입과 신앙성숙도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드러난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신앙성숙도와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

투입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B	SE	β	B	SE	β	B	SE	β
성별	.01	.11	.01	.07	.10	.06	.07	.10	.06
30대	.03	.19	.02	.02	.18	.02	.14	.17	.10
40대	.62	.14	.38	.46	.14	.29	.46	.14	.29
50대 이상	.02	.13	.02	-.01	.12	-.01	.07	.12	.05
직분자	.45	.25	.20	.45	.24	.20	.37	.23	.16
목회자	.07	.24	.04***	.05	.23	.03**	-.01	.21	-.01***
6-10년 이하	.18	.20	.09	.02	.20	.01	.08	.18	.04
11-20년 이하	.45	.17	.32**	.29	.17	.20	.25	.16	.18
21-30년 이하	.30	.16	.25	.15	.16	.12	.19	.15	.16
31년 이상	.43	.19	.29*	.26	.19	.17	.21	.18	.15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13	.04	.26**	.09	.04	.19**
봉사몰입도							.24	.06	.33***
$F(p)$	3.97***			4.75***			6.51***		
$R^2(adj. R^2)$.24(.18)			.29(.23)			.38(.32)		
R^2 변화(p)	.24			.05			.09		

주) * $p < .05$, ** $p < .01$, *** $p < .001$

4. 기독교인의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과 교회생활 만족도의 관계

기독교인이 지각한 교회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개인배경 변인과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이 어떠한 관련을 맺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참조). 첫 번째 모형에서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변인과 교회생활 만족도를 살펴보았을 때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두 번째 모형에서는 개인배경 변인에 이어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변인이 추가로 투입되었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세 번째 모형에서 개인배경,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변인에 이어 봉사 참여에 따른 봉사몰입도가 추가로 투입됨에 따라 설명력은 16%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기독교인의 봉사몰입도가 교회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파악되었고, 봉사몰입도가 투입된 후 교회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을 6% 추가적으로 향상시켰다. 이는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에 따른 봉사몰입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회생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

며, 봉사 참여 자체보다는 개인이 봉사활동에 몰입하는 정도가 높았을 때에만 교회생활 만족도에도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신앙경력이 길수록 기독교인의 교회생활 만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5> 교회생활 만족도와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

투입변인	모형1			모형2			모형3		
	<i>B</i>	<i>SE</i>	β	<i>B</i>	<i>SE</i>	β	<i>B</i>	<i>SE</i>	β
성별	-.12	.14	-.08	-.09	.15	-.06	-.09	.14	-.06
30대	-.09	.26	-.05	-.09	.26	-.05	.02	.25	.01
40대	.27	.19	.13	.19	.20	.09	.18	.20	.09
50대 이상	-.27	.17	-.16	-.28	.17	-.17	-.20	.17	-.12
직분자	.33	.34	.12	.33	.34	.12	.26	.33	.09
목회자	.02	.32	.01	.00	.32	.00	-.06	.31	-.03
6-10년 이하	-.36	.27	-.15	-.44	.27	-.19	-.38	.27	-.16
11-20년 이하	-.34	.23	-.19	-.43	.24	-.24	-.46	.23	-.27*
21-30년 이하	-.46	.21	-.31*	-.54	.22	-.36*	-.50	.22	-.33*
31년 이상	-.37	.25	-.20	-.46	.26	-.25	-.50	.26	-.27*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07	.06	.11	.03	.06	.06
봉사몰입도							.24	.08	.26*
<i>F</i> (<i>p</i>)	1.29			1.30			1.99*		
<i>R</i> ² (<i>adj. R</i> ²)	.09(.02)			.10(.02)			.16(.08)		
<i>R</i> ² 변화(<i>p</i>)	.09			.01			.06		

주) **p* < .05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인의 교회 및 사회봉사 경험이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신자 개개인의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도 증진을 위한 봉사 연계 교회교육 활성화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편의 표집 방식에 기초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집된 기독교인 140명의 설문응답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고, 연구문제별 분석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의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봉사몰입도, 신앙성숙도, 교회생활 만족도를 개인배경 특성에 따라 비교분석한 결과, 개인배경 특성은 봉사몰입도와 교회생활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이나 연령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직분과 신앙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비직분자에 비해 권찰 이상의 직분자, 목회자 순으로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수준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사

후검증 결과에 의하면 목회자가 비직분자 및 직분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앙경력이 오래될수록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의 수준의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앙성숙도에 대한 개인배경 특성별 차이 결과에서도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지만 직분과 신앙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회 직분 유무가 신앙성숙 함양에 관련이 없다는 선행연구(김수정, 2007)와 차이를 보인다.

둘째,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특성,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봉사몰입도가 신앙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개인배경 특성만을 투입한 1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설명력 또한 24%로 나타났다. 특히 비직분자에 비해 목회자들이 신앙성숙도를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앙경력이 높은 기독교인 또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직분, 신앙경력, 신앙성숙도와 상관 분석을 통해 드러난 결과와도 일치한다. 특히 교회 내 섬김의 사역을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하는 목회자와 직분자의 경우 신앙성숙의 주요 영역인 코이노니아(Koinonia, 교제), 레이투르기아(Leiturgia, 예배와 기도), 디다케(Didache, 가르침), 케리그마(Kerygma, 말씀선포), 디아코니아(Diakonia, 봉사와 섬김)의 차원에서 활동하는 정도가 비직분자 보다 높고, 신앙경력이 길수록 이러한 활동영역에 노출되어 공동체원들과 함께 봉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음에 따라 신앙성숙도의 함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단계 모형은 개인배경 특성에 이어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변인이 추가로 투입되었고, 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2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특히 기독교인들의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가 신앙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수준을 높이는 것은 기독교인의 신앙성숙도를 함양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단계 모형은 개인배경,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변인에 이어 봉사 참여에 따른 봉사몰입도가 추가로 투입되었으며, 모형 설명력은 38%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히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와 봉사몰입도가 신앙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에 따른 봉사몰입의 증대는 신앙성숙도를 함양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신앙성숙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수정, 2007)의 결과와 일치함과 동시에 교회활동이 신앙성숙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따라(정진오, 2009; 조혜정, 2012), 봉사 참여에 따른 봉사 몰입의 정도가 높을수록 교회생활 만족을 통한 신앙성숙도의 함양이 가능함을 유추할 수 있다.

셋째,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특성,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봉사몰입도가 교회생활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개인배경 특성만을 투입한 1단계 모형과 개인배경 특성에 이어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 변인을 투입한 2단계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봉사몰입도를 추가로 투입한 3단계 모형에서는 투입변인들이 교회생활 만족도를 예측하는 설명력은 16%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봉사참여 자체가 교회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데에는 영향을 나타내지 않지만, 봉사참여에 따른 봉사몰입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교회생활의 만족도가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독교인이 교회생활 속에서 다양한 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봉사활동을 긍정적이고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때에 교회생활에 적응이 용이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을 내리면, 신앙성숙도는 교회직분 유무와 신앙경력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신앙경력이 길수록 교회 내 교제, 예배와 기도, 가르침, 말씀선포, 봉사와 섬김 등의 영역에서 활동할 기회가 많음에 따라 신앙성숙도가 자연스럽게 증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회 및 사회 봉사 참여에 따른 봉사몰입의 수준이 높을수록 기독교인의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도가 증대됨에 따라 교회는 말씀선포와 사회봉사에 초점을 둔 교회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함으로써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 개개인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의 구체적 실천이 요구된다. 이에 몇 가지 실천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회는 신자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신앙교육을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아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둘째, 교회는 신자가 교회 내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나아가 말씀선포와 사회봉사를 실천함으로써 교회의 본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셋째, 교회는 지역사회에 연계한 다양한 섬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열린 교회로 나아가며, 이 때 교회 내 다양한 적성을 신자들의 협력을 도모하여 함께 섬기는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편의 표집 방식에 기초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설문응답자의 정보가 국내 기독교인들을 대표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추후에는 기독교인의 개인배경 특성을 더욱 다양화하여 교파, 지역, 교회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고 통계적 분석을 위한 사례수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교회 및 사회봉사 참여를 단일문항으로 설정하여 개인이 지각한 정도로 측정하였다. 추후에는 교회와 사회의 봉사 영역을 구분하고 각 영역별 유형을 구체화하여 신앙성숙도와 교회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구혜영 (2006). “자원봉사 조직특성 및 업무특성의 자원봉사자 활동유효성에 대한 영향: 임파워먼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 권순미 (200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김수정 (2007). “기독교청년의 신앙성숙도와 자존감과의 관계.” 『신학과 목회』. 27. 287-313.
- 김양섭 (1994). “교회만족이 이교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남문현 (2008). “복지목회를 위한 자원봉사 참여 지속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 박기영 (1996). “크리스천 부부의 신앙성숙도와 의사소통 유형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박지현 (2011). “기독교 중년여성의 신앙성숙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회봉사와 사회봉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 배은주 (2004). “기독교신학도의 신앙성숙도와 자존감의 관계 연구.”
- 양웅비 (2007). “기독교인의 교회내 스포츠활동 참여와 교회만족 여가만족 생활만족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이복수 (2002). “기독교 사회봉사에 대한 신학적 이해.” 『고신신학』. 2002년 봄. 145-195.
- 이왕재 (2012). “교회의 지역 사회 봉사를 통한 지역공동체와의 소통과 교회 활성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 신학대학교.
- 이정수 (2009). “신앙성숙 평가척도 개발에 관한 교육목회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 임희모 (2001). “교회 본질 회복에 있어서 사회봉사의 역할.”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0(1). 263-285.
- 정진오 (2009). “중년기 종교 활동과 신앙성숙도가 부부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년 10월. 265-288.
- 조혜정 (2012). “기독교 중년여성의 신앙성숙이 삶의 질과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교육정보』. 32. 97-122.
- 현외성 (2011). “중고령자의 영성, 교회만족 및 생활만족.” 『노인복지연구』. 54. 35-60.
- 황병배·안병덕 (2016). “기독교인의 문화성향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신앙성숙도의 차이 연구.” 『신학과 실천』. 48. 307-329.
- Mowday, R., Steers, R., & Porter, L. W. (1979). “The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224-247.
- Silverman, W. H., Pargament, K. I., Johnson, S. M., Echeemendia, R. J., & Snyder, S. (1983). “Measuring member satisfaction with the churc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 664-677.